

#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역학 정치\*

-마가렛 애트우드의 『홍수의 해』-

주 기 화\*\*

- I. 들어가며
- II. 지구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들
- III. 열역학 정치 · 경제 · 윤리 · 미학
- IV.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 V.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인들의 생존 투쟁과 관련하여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홍수의 해(The Year of the Flood)』에서 팬데믹을 예견하고 대비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인류세의 생태 위기를 주로 기술제국주의, 페미니즘, 인간공학, 종말론, 종교와 신학, 포스트휴먼 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계의 물질적 얽힘 · 상호작용 · 순환 그리고 비인간들의 행위능력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어서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의 시대에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의 관점에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29756).

\*\*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작품에 상상된 대안적인 사회의 재구성을 물질적 얽힘과 내부작용, 에너지와 일, 비인간의 행위능력 등을 겨냥하여 개입하는 열역학 정치(thermodynamic politics) 측면에서 탐색한다. 분석에 따르면 작품 속의 신의 정원사들은 반생명적인 네트워크의 문제적인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들을 감속하고 절단하여 균열을 만든다. 그리고 이 흐름들을 포획하고 변형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 이 작품은 팬데믹을 초래한 가이아의 물질적 세계에 주목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탈주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열역학 정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발명한다. 필자의 논의는 열역학 경제·윤리·미학, 열역학 가이아 정치와 맞물려 있다.

#### • 주제어

마가렛 애트우드, 『홍수의 해』, 인류세, 팬데믹, 신유물론, 열역학 정치, 열역학 가이아 정치

## I. 들어가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 종말 시나리오 중 하나로 바이러스성 팬데믹을 제시하면서,<sup>1)</sup> 이를 피하려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기존의 삶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변명과 체념 속에서 자포자기 하는 한편, 오히려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불확실한 과학기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오만함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에 대한 경고는 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사망하고, 전 세계는 격리와 감금, 경제파탄, 식량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악화로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다. 인류는 대붕쇄와 격리, 백신개발, 위생과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들을 정복·제압하려는 인간들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 보다 빨리 변이하면서 제2, 제3의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는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사고와 담론의 전환을 외칠 뿐, 일상생활이나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판과 분석, 설득과 항의, 윤리적 호소를 통해, 인간중심적이고 인간예외적인 습속에 물든 인간들에게 포스트휴먼적인 삶형태로 전환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과 설득은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기존의 삶형태를 벗어나기 위한 탈주 속도 및 임계 규모에 도달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의 자장에서 탈주할 방법은 무엇인가?

---

1) 예를 들어,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인류가 직면한 최대 재앙은 핵전쟁이 아니라 강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라고 경고했다("The next outbreak? We're not ready" <[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l&feature=emb\\_logo](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l&feature=emb_logo)>).

인간과 미생물 같은 유기체든, 기관·제도·시설 같은 무기체든, 대다수의 개체들은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해 지속적인 물질(=에너지)의 공급(흐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이 필요하다.<sup>2)</sup> 모든 물질적 흐름을 빨아들이고 구부리는 강고한 자본주의나 막강한 팬데믹 같은 “블랙홀 객체”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은,<sup>3)</sup> 이들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인간과 비인간(nonhuman, 인간 너머의 것) 네트워크의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흐름과 재생산 활동에 주목하여, 그 흐름과 일을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레비 브라이언트(Levi R. Bryant)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개입을 “열역학 정치(thermodynamic politics)”라고 하는데, “열역학 정치란 어떤 기계의 에너지원과 작업 역량을 겨냥하는 정치적 개입 형식이다.”<sup>4)</sup> “지구에 묶여있는(earthbound)”<sup>5)</sup>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만족스러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고한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2)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E=MC^2$ )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질은 에너지와 상호 변환 가능하므로, 물질은 에너지다. 핵과 전자들로 구성된 원자의 내부는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99.99% 이상이 빈 공간이다. 이 빈 공간은 보이지 않는 전자기적 인력에 의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에너지는 시공간 안에서 보이는 물질로 표현된다. 한편 후쿠오카 신이치(福岡伸一)에 따르면, 모든 개체 자체는 마이크로 단위에서 보면, 우연히 그곳에서 밀도가 높아진 분자가 여유롭게 ‘머무르는’ 상태에 불과하다. 그 구성 분자는 모두 빠른 속도로 분해되며, 생명체의 경우 음식으로 섭취된 분자들로 대체된다. 개체의 몸 자체는 끊임없이 통과하고 있는 분자가 일시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모든 개체의 몸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흐름들이 맺는 관계, 마주침에 따라 흐름들은 끊임없이 절단·변형·감속·가속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발한다(후쿠오카 신이치 저, 김소연 역, 『동적평형』, 은행나무, 2010, 192~193쪽).

3) 모든 물질은 주위의 시공간에 변형을 주어 중력의 장(場)을 형성한다. 레비 브라이언트(Levi R. Bryant)는 유무형의 모든 존재자를 중력 관계에 따라 여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 하나인 블랙홀 객체는 “시공간을 구부리는 중력이 매우 거대하여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는 객체다(Levi R. Bryant, *Onto-Cartography: An Ontology of Machines and Media*, Edinburgh: Edinburgh UP, 2014, p. 207).”

4) Ibid., p. 72.

5)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7, p. 85.

크를 유지하는 에너지 흐름과 조작역량에 개입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폭로나 인식 전환보다 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열역학 정치 개념은 담론보다는 물질에, 인간보다는 비인간에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의 자장 안에 위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를 둘러싼 신종 바이러스, 미생물, 야생동물 등과 같은 비인간을 철저히 대상화해서 지배·규제할 수 있다는 사고와 행동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러나 이들 비인간들은 코로나19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 바이러스는 무매개적으로 인간을 감염하여 몸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꿔놓고, 사회의 어두운 면면을 드러내어 사회정치적인 의제로 공론화하고, 기술과학의 혁신을 추동하는 등, 인간 삶 전체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인간 주체의 휴머니즘이나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인간과 사회의 압축적이고 가속적인 변신과 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인간(휴먼)은 비인간 바이러스에 의해 새로운 인류, 포스트휴먼으로 “상전이(déphasage)”<sup>6)</sup> 중이다. 그러므로 바이러스가 인류의 절멸을 불러오는 ‘재앙과 불운,’ ‘적’이라는 이미지는 불완전하다. 바이러스를 위시한 비인간들은 까다로운 “고려의 대상(matter of concern)”<sup>7)</sup>이지만,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에 변화와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행위자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을 인간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중요한 행위자로 호명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비인간들을 불러내자, 사회구성주의의 부상으로 밀려났던 유물론이 비인간들의 행위능력(agency) 및 인간-비인간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이론화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유물론,’ ‘신유물론’이다. 신유물론은 기존의 자연/문화, 비인간/인간, 육체/정신, 섹스/젠더 등의 이분법을 물질-담론 일원론에 입각해 해체한다. 대표적 이론에는 브

6) Gilbert Simondon,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Grenoble: J. Millon, 2005, p. 34.

7) Bruno Latour,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2, 2004, p. 246.

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의 어셈블리지 이론(assemblage theory), 브라이언트와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의 객체지향존재론(object oriented-ontology),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와 캐런 버라드(Karen Barad)로 대표되는 페미니스트 신유물론(feminist new materialism)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 핵심은 1)자신이 맺는 관계적 어셈블리지에 따라 속성과 역능이 달라진다는 ‘관계적 물질성,’ 2)닐스 보어(Niels Bohr)의 양자역학적 인식 틀과 스피노자(Baruch Spinoza)의 일원론적 우주 개념을 이용하여 자연/문화라는 이원론적 구도에서 빠져나오는 ‘일원론적 존재론,’ 3)비인간 행위능력에 주목하는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8)</sup> 현재 신유물론은 인류세(Anthropocene)를 위한 이론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sup>9)</sup>

이 논문은 이러한 신유물론과 관련하여, 브라이언트의 열역학 정치 개념을 토대로, 최근 다양한 분야의 신유물론적 성과 및 연구를 더하여, 마가렛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홍수의 해(The Year of the Flood 2009)』에서 팬데믹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인들의 생존 투쟁과 관련하여 작품에 상상된 대안적인 사회의 재구성, 물질적 얽힘과 내부작용, 에너지와 일, 비인간의 행위능력 등을 겨냥하여 개입하는 열역학 정치 측면에서 탐색할 것이다. 『홍수의 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작품에 상상된 인류세의 생태적 위기를 주로 기술제국주의,<sup>10)</sup> 페

8) 김환석,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2018, 5~6쪽.

9) Iris van der Tuin and Rick Dolphijn,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Open Humanities Press, 2012, p. 16.

10) Danette DiMarco,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Homo Faber and the Makings of a New Beginning in *Oryx and Crake*”,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41.2, 2005; Eduardo Marks de Marques, “Children of Oryx, Children of Crake, Children of Men: Redefining the Post/Transhuman in Margaret Atwood’s “ustopian”

미니즘,<sup>11)</sup> 인간공학,<sup>12)</sup> 종말론,<sup>13)</sup> 종교와 신학,<sup>14)</sup> 포스트휴먼<sup>15)</sup> 등에 초점을 맞춰 다룬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인간 자연보다는 인간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계의 물질적 얽힘·상호작용·순환 그리고 비인간들의 행위능력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어서 유물론적 전회(material turn)의 시대에 포스트휴먼적인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광신적인 생태론자로 알려진 “신의 정원사들(the God’s

---

MaddAddam Trilogy”, *Aletria: Revista de Estudos de Literatura*, 25.3, 2015; J. B. Bouson, “We’re Using Up the Earth. It’s Almost Gone”: A Return to the Post-Apocalyptic Future in Margaret Atwood’s *The Year of the Flood*”, *The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46.1, 2011; Richard Alan Northover, “Ecological Apocalyps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Studia Neophilologica*, 88, 2016.

- 11) Calina Ciobanu, “Rewriting the Human at the End of the Anthropocen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The Minnesota Review*, 83, 2014; Gerry Canavan, “Hope, But Not for Us: Ecological Science Fiction and the End of the World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Lit: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23.2, 2012; Claire Colebrook, “9/11 as Event and *The Year of the Flood*”, *Women’s Fiction and Post-9/11 Contexts*, 2014.
- 12) Hannes Bergthaller, “Housebreaking the Human Animal: Humanism and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English Studies*, 91.7, 2010.
- 13) Laura Wright, “Vegans, Zombies, and Eco-Apocalypse: McCarthy’s *The Road* and Atwood’s *Year of the Flood*”,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Isle)*, 22.3, 2015; Katarina Labudová, “Power, Pain, and Manipulation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Brno Studies in English*, 36.1, 2010.
- 14) Andrew Hoogheem, “Secular Apocalypses: Darwinian Criticism and Atwoodian floods”,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45.2, 2012; Bianca Del Villano, “An Ecocritical Retelling of the Bible: Genesis and Apocalypse in Margaret Atwood’s *The Year of the Flood*”, *Textus*, 27.3, 2014; Nazry Bahrawi, “Hope of a Hopeless World: Eco-Teleology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Green Letters*, 17.3, 2013.
- 15) Valeria Mosca, “Crossing Human Boundaries: Apocalypse and Posthumanism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Altre Modernità*, 9, 2013.

Gardeners, 17)”<sup>16)</sup>이 정원을 만든 후, 그들이 예견한 팬데믹이 휩쓸기까지 25년 동안 팬데믹에 대비하여 살아남은 이야기이다. 본문에서는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 신의 정원사들의 생태적 신념과 행동 강령, 축일과 성인들, 팬데믹에 대한 예언과 대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정원사들이 “에덴절벽 옥상정원(Edencliff Rooftop Garden, 13)”<sup>17)</sup> 구축 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실천들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팬데믹이 휩쓸자 이에 대비한 정원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재생의 첫 순간을 목격하고, 인류 재건을 도모하는지 이야기하겠다.

## II. 지구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들

인류세의 기후변화 및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인간 군상을 그리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미리 방문한 듯한 작품 중 하나가 『홍수의 해』다. 이 작품은 『오릭스와 크레이크(Oryx and Crake 2003)』, 『매드아담(MaddAddam 2013)』과 함께 ‘매드아담’ 3부작을 이루는 두 번째 작품이다. 이 3부작에 상상된 근미래는 유전공학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공모하여 낳은 디스토피아로서, 극단적인 생명경시와 인간중심주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회적 불평등과 성차별을 특징으로 한다. 대기업 관할의 부유한 조합(compound)과 평민촌(pleebland) 슬럼으로 양극화된 지속불가능한 디스토피아 사회와 생명공학적 실험으로 만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야기된 팬데믹을, 1부인 『오릭스와 크레이크』가 조합에 사는 두 소년의

---

16) Margaret Atwood, *The Year of the Flood*, London: Virago Press, 2013, p. 17. 앞으로 『홍수의 해』 본문 인용시 특별한 서지사항 언급 없이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할 것이다.

17) 『홍수의 해』의 한글 번역은 이소영의 번역본 『홍수』를 참조하였다.



눈을 통해 그린다면, 2부인 『홍수의 해』는 신의 정원사들 출신의 두 여성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3부인 『매드아담』에서는 팬데믹 이후 다양한 비인간들과 인간들이 공존·공생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들을 탐색·발명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평민촌 빈민가인 “오물늪(the Sewage Lagoon, 47)”에서는 수많은 광신적 종교 집단들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광적인 생태론자(ecofreak, 48)”로 여겨지는 신의 정원사들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의 주요 신념은, 인간은 신 대신 지구 정원의 생명체들을 돌보는 “관리자의 임무(task of stewardship, 63)”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구 위임설은 인간의 예외성이나 우위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존의 생태계에서 파괴되고 멸종된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응답능력(response-abilities)”<sup>18)</sup>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땅 위의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에 속해 있으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 또한 영혼을 지니며 이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역능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 정원사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담1(Adam One)은 “우리가 다른 모든 생명체들 위에 있어서, 우리 맘대로 그들을 파괴해도 별 받지 않을 거라고 헛되게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63)고 말한다.

이들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이며, 서로 돌봐 주어야 할 서로의 아이들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단일한 평면에 동등하게 존재하는데, 역능이나 역량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면서 예외적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예외적이지 않다는 신유물론의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sup>19)</sup>을 나타낸다. 신의 정원사들은 더 이상 인간 주체와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인간 지구 가이아에 맞춰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만족스러운 지속가능한

18) Donna Haraway, *Manifestly Haraway*, Minneapolis, MN: U of Minnesota P, 2016, p. 294.

19) Manuel DeLanda,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3, p. 51.

공동세계(common world)를 구성하려 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유전자조작 커피 작물을 재배하는 “행복한컵 조합(Happicuppa Corp)”에 반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커피 노동자에 대한 조합의 열악한 대우에 항의하는 반면, 정원사들은 반(反)조류 정책에 항의한다(444). 왜냐하면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시대에는 DDT 살충제가 조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 인류세에는 커피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조류의 서식지인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포스트휴머니즘으로 전환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아담<sup>1</sup>은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작은 것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체들로 구성된 정원 이니까요. 창자에 사는 식물균 또는 적대적인 침입자들을 막아주는 박테리아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살겠습니까? 우리의 몸속은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 맞습니다. 때로는 없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나노 생명체들, 예를 들면 유해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눈썹 진드기, 십이지장충, 음모에 붙어 있는 이, 요충, 진드기 같은 것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파견된 가장 작은 천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생명체들 역시 영원한 신의 마음속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빛 속에서 반짝이며 다양한 소리를 내는 창조의 교향곡을 구성하는 일부 분이기 때문입니다.

We are inclined to overlook the very small that dwell among us; yet, without them, we ourselves could not exist; for every one of us is a Garden of sub-visual life forms. Where would we be without the Flora that populate the intestinal tract, or the Bacteria that defend against hostile invaders? We teem with multitudes, ... True, we are sometimes infested with nanobioforms

we would prefer to be without, such as the Eyebrow Mite, the Hookworm, the Pubic Louse, the Pinworm, and the Tick, not to mention the hostile bacteria and viruses. But think of them as God's tiniest Angels, doing His unfathomable work in their own way, for these Creatures, too, reside in the Eternal Mind, and shine in the Eternal Light, and form a part of the polyphonic symphony of Creation. (192)

아담1의 말처럼 우리의 감각으로는 인식하기 어렵지만, 우리 몸은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s)”에게 완전히 점령되어 있다.<sup>20)</sup> 우리의 피부, 창자, 세포는 온통 미생물 투성이다. 이 공생 미생물이 없다면 인간은 독립된 단위로 생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지구가 신의 정원이라면, 인간의 몸 또한 온갖 미시 생명체들이 어울려 거주하는 정원이다. 이 정원은 인간과 비인간 “집합체(collective)”<sup>21)</sup> “어셈블리지(assembly)”<sup>22)</sup>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교향곡이 생산된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신의 정원사들은 “인구 과잉과 사악함 때문에 (56)” 인간 스스로에 의해 야기될 “물 없는 홍수(Waterless Flood, 24)” 즉, 팬데믹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절멸할 것이지만, 자신들은 아라랏 저장고에 비축한 음식으로 물 없는 홍수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신이 야기한 첫 번째 홍수에서 방주를 만든 노아(Noah)처럼, 정원사들은 두 번째 홍수에서 마음으로 수집해놓은 멸종한 동물들의 이름과 함께 살아남아 세상을 다시 충만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정원사들의 몸은 정원일

20) Ed Yong, *I Contain Multitudes: The Microbes within Us and a Grand View of Life*, New York, NY: Ecco, an Imprint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6, p. 2.

21) Bruno Latour,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P, 1993, p. 4.

22)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p. 4.

뿐만 아니라,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들과 계몽을 지키는(300)” 현세의 방주다. 아담1은 전염병에 대비하여 낯선 사람과 만난 다음에는 적어도 하루에 일곱 번 반드시 손을 씻고, 재채기 하는 사람을 피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수적인 예방책(110)”과 몸 윤리에 매우 까다롭다. 이들은 “바깥 지옥세계(the Exfernal World, 71)”로 외출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검은색 일벌형 공기 여과기(26)”를 코에 착용하기 때문에 광적이라고 박해받았지만, 결국 팬데믹에서 살아남았고,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이들의 종교적 강령과 실천의 중심에는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인간 몸 사이의 “물질적 상호연결들(material interconnections)” 및 교환과 이동이라는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한다.<sup>23)</sup> 작품 속에서 유전자조작 바이러스로 야기된 팬데믹은 비인간 바이러스가 인간과 다른 비인간 몸들을 관통하면서 인간의 삶을 변형하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정치적 힘을 잘 보여준다.

횡단신체성을 통찰한 신의 정원사들은 인간은 수많은 피조물들과 “DNA와 RNA(64)”로 묶여 있는 “친척(kinship, 235)”이라고 본다. 그래서 동식물들에 대한 축제와 축일을 만들어 이들의 역능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키고, 멸종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생태-환경론자들을 성인으로 기리며 애도한다. 예를 들어 아담 1은 ‘지혜로운 뱀의 축제’에서 “뱀의 지혜란 땅의 진동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279)”이라고 말한다. “우리 인간은 밟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물들은 몸으로 느끼고 “생각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어서” “믿음(faith)이 필요하지 않으므로(279)” 경이롭다. 애트우드 는 이를 통해 가이아의 “자기규제 시스템(self-regulating system)”에서 “센서들”로 일조해야 할 인간이 뛰어난 정보감시 기술 능력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를 파악하

23) Stacy Alaimo,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Bloomington: Indiana UP, 2010, p. 2.

는 데 있어 다른 생물들보다도 못함을 질타한다.<sup>24)</sup> 정원사들에게 고릴라의 밀렵을 막는 데 일생을 바친 다이앤 포시(Dian Fossey), 살충제로부터 조류를 보호한 카슨 등은 모두 성인들이다. 이러한 추대와 애도는 남은 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죽음에 빚졌음을 기억하고, 해러웨이의 말처럼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관계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sup>25)</sup>

신의 정원사들은 믿음과 신념, 이성과 생각, 지식과 담론, 인간보다, 물질, 몸, 정동(affect), 행위, 비인간 자연에 우선순위를 둔다. 바깥지옥세계에서 구출된 토비(Toby)는 정원사들과의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지만, “첫날 자신이 느꼈던 깨달음의 순간을 또 다시 느낄 수가 없었다(200).” 아담이 정원사들의 핵심 멤버인 이브가 되어달라고 제안하자 토비는 신의 정원사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이브가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위선이라고 말한다(200).<sup>26)</sup> 아담은 어떤 종교는 믿음이 행위(action)를 앞서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는 행위가 믿음을 앞선다. 너는 믿는 것처럼 행동했어. 마치~인 것처럼(as if)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보면 이윽고 신념이 따라올 거야. 믿음에 대해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돼. 인간의 이해는 오류투성이인 데다 우리는 유리잔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단다(201)”라고 말한다. 물질과 행위가 믿음이나 지식보다 앞선다는 정원사들의 강령은, 멸종되어가는 생명들을 회복하고 긴박하게 도래한 팬데믹에 대비하는 즉각적인 행동이나 조치들을 촉발한다. 이것은 인류세의 기후변화와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시사한다.

24) Timothy M. Lenton and Bruno Latour, “Gaia 2.0”, *Science*, 361.6407, 2018, pp. 1067~1068.

25)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P, 2016, p. 38.

26) 전문 영역과 말은 일의 중요도에서 아담과 이브들의 서열이 일반 정원사보다 높다.

믿음이나 신념이 희미하지만, 토비는 이브6 직함을 물려받아 이브6처럼 행동한다. 이제 그녀는 이브6라는 직함이 자신에게 스며들면서 본 모습이 침식되고 과거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모두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새로운 이브6-토비는 특정한 “물질적-담론적” 요인들의 제약을 받으며 역동적인 “내부작용(intra-action)”<sup>27)</sup>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구성(co-constitution)”<sup>28)</sup>되는 몸을 잘 보여준다. 버라드에 따르면 ‘내부작용’이란 “얽혀있는 행위주체들의 상호구성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 상호작용에 앞서서 존재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행위 주체들을 가정한다면, 이 신조어는 별개의 행위 주체들이 전제되지 않고 오히려 내부작용을 통해 창발한다고 인식한다.”<sup>29)</sup> 이브6-토비의 출현과 동시에 신의 정원사 네트워크의 다른 관계항들(정원사들, 동식물들 등) 또한 내부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하면서 네트워크를 강고하게 만든다.

### Ⅲ. 열역학 정치 · 경제 · 윤리 · 미학

신의 정원사들은 사악한 오물늪의 폐허가 된 건물들을 아지트로 삼고, 향량한 옥상에 ‘에덴절벽 옥상정원’을 건설한다. 푸른 나무들을 키워 삭막한 황무지를 장미처럼 멋진 곳으로 만들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와 치료제를 얻는다. 그리고 바깥지옥세계에서 고통 받고 버림받은 인간과 비인간들을 구출하여 돌본다. 이 정원은 인류세의 기후변화와 팬데믹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다양한 종들의 어셈블리지가 재구축될 수 있는 “레퓨지아(refugia)”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황무지 옥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27)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P, 2007, p. 153.

28) Donna Haraway, *Manifestly Haraway*, p. 99.

29) Karen Barad, op. cit., p. 33.

30) Donna Haraway, “Anthropocene, Cpa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의해 이용되고 버려진(담론적), 황폐하고 삭막한(정동적), 쓰레기 배출물로서(물질적), 물질적-정동적-담론적 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 흐름은 탈인간중심적이고(담론적), 생의 활력을 추구하는(정동적), 신의 정원사들이라는(물질적) 흐름과 마주치고, 이 흐름들은 상호 얽히고 내부작용하여, 장미가 피어나는 정원으로, 자신의 새로운 역능을 발휘하는 아담과 이브들로 창발한다. 정원사들은 개체들의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흐름과 얽힘, 내부작용에 유의하여 오물늪의 에너지 흐름을 변형한다. 그리하여 엔트로피가 낮은,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어셈블리지, ‘에덴절벽 옥상정원’을 만든다.

평민촌 출신의 토비는 집안 사정이 악화되자, 오물늪으로 흘러들어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다음에는 난자를 팔아 연명하다가, 불임이 되어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시크릿버거(SecretBurgers, 46) 체인점에서 일한다. “시크릿버거의 비밀은 햄버거 안에 실제로 어떤 종류의 동물 단백질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다(40).” 사람들은 햄버거에서 고양이 털이나 쥐 꼬리 조각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했으며, 한번은 사람의 손톱이 발견되었다. 이식용 장기를 확보한 후 장기를 빼낸 사체를 시크릿버거 분쇄기에 넣고 돌린다는 최악의 소문까지 나돌았다(40).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매니저 블랑코(Blanco)의 성노리개로 전략한 토비는, 시크릿버거를 먹고 만들어 파는 관계 속에서 물질적-정동적-담론적 내부작용에 의해 큰 상처를 입어 몸과 마음이 병들지만, 이 네트워크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신의 정원사들과의 만남은 그녀가 탈주할 수 있게 한다. 아담1은 토비에게 “내 아가, 네가 팔고 있는 게 뭐지 아니? 너는 분명 네 친척들을 먹지는 않을 거야(49),” “우리에게로 오렴. 우리는 네 친구고, 네가 지낼 곳도 있단다(50)”라고 설득한다. 아담1과 다투던 블랑코가 넘어지고,

---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6, 2015, p. 159.

근경에 처한 블랑코를 보자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진 토비는 그의 머리를 발로 차며 으르렁댄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다. 직장을 잃은 토비는 어쩔 수 없이 정원사들의 옥상으로 피신한다. 이제 토비는 시크릿버거와 블랑코를 중심으로 한,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비인간 네트워크의 자장에서 탈주하여, 신의 정원사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토비가 탈주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정원사들의 믿음과 교리에 설득되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당하는 블랑코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블랑코를 공격할 용기와 행동이 저절로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아인 자신을 친구로서 다정하게 위로하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물질과 정동에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즉 정원사들과 토비의 물질적-정동적-기호적 흐름들이 상호 얽히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부작용에 의해 블랑코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는 새로운 힘이 내재적으로 창발한 것이다. 토비의 탈주는 블랑코와 바깥지옥세계로 대변되는 인류세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연한 물질적 마주침들에 의해 언제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토비의 구출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모든 생명과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축출하여 갈아버리는 시크릿버거를 만드는 반생명적인 네트워크, 문제적인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을 절단·변형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재접속하는 정원사들의 열역학 정치를 잘 보여준다.

신의 정원사들에 접속한 토비는 옥상정원에서 아이들의 환영어린 포옹을 받았다. 몸을 씻지 않은 아이들의 달콤하면서도 짹짹한 냄새 속에 파묻힌 그녀는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어떤 것, 마치 토끼들이 코를 비벼대는 것 같은 “은은하게 친밀한(softly intimate, 51)” 느낌에 감동했다. 정원의 식물들과 꽃들, 나비와 벌들, 생명의 생기와 빛을 보고 토비는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고, 마치 하늘에서 “자애로운 큰 손(a large, benevolent hand, 52)”이 내려와 그녀를 들어 올려 안전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순간을 그녀는 결코 잊지 못했고, 이곳에 오게 된 것



은 자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something else, 52)”이 그녀 대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토비를 사로잡은 이 순간의 ‘은은한 친밀감’, ‘생명의 생기와 빛’, ‘자애로운 큰 손’,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옥상정원의 동식물들, 아이들, 그리고 토비로 구성된 새로운 인간-비인간 네트워크에서 개체들의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들과 얽힘, 내부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몽동에 따르면, 이것들은 옥상정원의 인간과 비인간 개체들에 잔존하는 “전(前)개체적 실재(réalité préindividuelle)”의 “퍼텐셜 에너지(énergie potentielle)”<sup>31)</sup>가 개체초월적(transindividuel)으로 얽히면서 내부작용으로 자가구성된(auto-constitutif) “개체초월적 실재(réalité transindividuelle)” 또는 “내재성(immanence)”이다.<sup>32)</sup> 시몽동은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차라투스트라(Zarathoustra)가 죽은 줄타기 곡예사에게서 느낀 형제애, 절대적이고 심오한 박애를 ‘개체초월적 실재’ 또는 ‘내재성’이라고 부르면서, “개체와 개체초월적 실재와의 최초의 만남이” “외적으로는 계시의 국면을 제시하는 예외적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개체초월적인 것은 자가구성적이다”라고 말한다.<sup>33)</sup> 신의 계시처럼 보이는 토비의 사례는, 차라투스트라의 사례처럼 자가구성된 개체초월성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체초월성은 옥상정원의 개체들을 서로 일치하게 만들면서 신의 정원사들이라는 강고한 어셈블리지 즉, “심리적이고 집단적인 개체화(individuations psychique et collective)”<sup>34)</sup>를 만든다. 시몽동의 내재성 개념은 들뢰즈로 계승되는데, 들뢰즈는 내재성을 ‘초재적인 것(the transcendent)’이 아닌 “초월적(초험적)인 것(the transcendental)”, “비주체적 의식의 순수한 흐름(a pure stream of a-subjective)”, “자기 없는 의식의 질적인 지속(a qualitative duration of consciousness without a self)”이라고 설

31) Gilbert Simondon, op. cit., p. 27.

32) Ibid., p. 274.

33) Ibid., p. 274.

34) Ibid., p. 227.

명한다.<sup>35)</sup> 시몽동과 들뢰즈를 통해 우리는 토비의 사례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란 바로 개체초월적인 내재성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신의 정원사들을 초재적인 신(God)이 아니라, 대지의 세계의 현존(내재성)을 신봉하는 철학자들로 해석할 수 있다.

토비가 합류한 후 ‘에덴절벽 옥상정원’ 네트워크의 개체항들은 새롭게 상호구성된다. 이제 토비는 필라(Pilar)와 함께 벌을 위해 옥상정원의 메밀과 라벤더를 돌본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한밤이 되면 토비는 자기 자신을 들이마셨다. 새롭게 태어난 자아를. 그녀의 피부에서는 꿀과 소금 냄새가 났다. 그리고 흙 냄새도(121).” 이전에 토비는 생계를 위해 멸종위기 동물의 가죽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일하면서 화학물질과 고약한 기름 냄새를 흡입했고, 시크릿버거 가게에서는 알 수 없는 살코기들을 분쇄한 버거를 먹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의 꿀, 소금, 흙이 토비의 투과적 몸에 침투하여 축적되고, 횡단신체적으로 상호연결된 물질들의 내부작용을 통해 발효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자아, 흙 냄새 나는 토비가 창조된다. 외부는 내부가 되고, 자아와 타자는 구별 불가능하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연, 즉 인간의 신체가 아닌 한에서의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신체다”라고 말한다.<sup>36)</sup> 토비가 자기 자신을 들이마셨다는 표현은, 타자로 간주되던 자연의 물질들이 자아와 구별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녀는 이제 식물과 버섯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치료제 등을 만들고,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불량코를 제거하는 등 자신의 역능을 새롭게 발휘하는 이브6로 거듭난다.

온 세상의 벌들은 살충제, 질병, 뜨거운 날씨 등으로 수십 년 동안 곤경에 빠져 있지만, 토비와 필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옥상정원의 벌들은 번성한다. 토비는 벌들과 소통하면서 바깥지옥세계에서 상처

35) Gilles Deleuze, *Pure Immanence: Essays on a Life*, New York, NY: Zone Books, 2001, pp. 25~26.

36) Karl Marx, *Economic &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p. 31.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pdf/Economic-Philosophic-Manuscripts-1844.pdf>>

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벌들 또한 토비와 친밀하게 관계맺음으로써 생명을 회복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꼴로 인간의 상처를 치료하고 활력을 증강시키고, 토비를 위협하는 블랑코에게 덤벼들어 물리치는 역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거듭난다. 토비와 벌은 이제 더 이상 블랑코로 대변되는 인류세의 주범들에게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멸종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토비와 벌들은 서로 돌보면서 공구성적 관계를 이루는 “반려종(companion species)”<sup>37)</sup>이다. 이들은 “공제작용(sympoietic) 시스템”을 이루는 세계에서, “절대 홀로 있지 않은 채 다른 세계들과 늘 얽힌 채로 함께 만든다.”<sup>38)</sup> 토비와 벌들은 인류세를 함께 건너가는 반려종, 친척이다. 버라드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 “관계항은 관계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상들 안의 관계항은 구체적인 내부작용을 통해 출현한다.”<sup>39)</sup> 새로운 역능을 가진 각 관계항 즉, 변신 토비와 반려종 벌은 관계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물질적 내부작용을 통해 창발한다.

토비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동적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또는 우연하게 옥상정원으로 흘러든다. 힘없는 여성들, 아이들이 특히 그렇다. 이러한 흐름들을 받아들이거나 끌어오고 가속하고 변형하여, 생명 회복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바깥지옥세계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것이 바로 신의 정원사들의 열역학 정치다. 아만다(Amanda)는 텍사스의 가뭄과 허리케인으로 부모를 잃은 후, 열악한 난민수용소를 탈출하여 수천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했고, 음식 같은 걸 찾아 평민촌으로 흘러들어 거처 없이 아무데서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면서 도둑질과 섹스로 연명 중인 텍사스 멕시코 계 어린 소녀, 기후난민이다. 신의 정원사들의 일원인 10살 소녀 렌(Ren)은 우연히 만난 아만다로

37) Donna Haraway, *Manifestly Haraway*, p. 103.

38) *Ibid.*, p. 216.

39) Karen Barad, *op. cit.*, p. 140.

부터 사정을 듣고 불쑥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92)”고 말한다.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특 튀어나온 것이다. 렌은 평민층 출신의 아이들이 모두 도둑이거나 거짓말쟁이, 들개라는 엄마 루선(Lucerne)의 편견, 산전수전 다 겪은 아만다가 도둑질, 아침 등 세상사에 너무 능숙해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정원사들의 우려, 모르는 사람과는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깨고, 경계를 넘어가 인종과 계급이 다른 아만다를 자매로 맞이하여 가족을 이룬다. 렌은 마치 길 잃은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듯이 아만다를 데려가고, 아만다는 자신이 지낼 거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렌의 집에 정착한다. 토비처럼 아만다도 정원사들의 믿음에 설득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을 믿어주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는 정원사들의 물질적-정동적 중력에 끌린 것이다. 렌과 아만다는 함께 살면서 팬데믹이 창궐한 속에서도 서로를 목숨 걸고 구해낸다. 이처럼 신의 정원사들은 어른이건 아이건, 인간과 비인간을 가리지 않고 가족 만들기, 친척 만들기 즉,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선수들이다. 애틀우드라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쉽게 우발적으로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 아만다의 탈주를 너무도 우연하고, 무심하고, 비논리적이고, 비개연적으로 재현한다.

반면, 이 소설에서 바깥지옥세계에 물질적 기반을 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 루선은 재가하면서 렌을 버리고, 아버지는 너무도 무관심하다. 새키(Shackie) 형제들의 엄마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가이아적 삶형태의 연결성을 보지 못하는 이 세계의 물질적 흐름과 일들은 타자의 생명을 돌보고 순환시키는 데 복무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과 생명들을 무한정 빨아들여 태워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러한 물질대사의 종획과 단절은 공감의 단절, 무관심을 낳는다. 사랑의 한 양태인 공감(정동)의 단절이 초래한 것이 바로 가족에 대한 배신과 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사들은 물질적 흐름과 일들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이아적 삶형태를 위해 즉, 생명을 순환시키

고 돌보는 데 사용한다. 버려진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고,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필라는 토비에게 벌들을 돌보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법을 전수하고, 토비는 아픈 가족사를 필라에게 털어놓으면서 속 깊은 모녀 관계를 이룬다. 정원사들은 공동체로 흘러드는 새로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인종에 상관없이 받아들여 가족처럼 함께 살아간다. 정원사들의 가족 만들기, 친척 만들기는 종도 넘어선다. 두 세계의 이러한 대조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물질대사의 순환을 위한 일들이 중요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원사들은 혈연 중심의 기존의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들보다는, 낮설고 이질적인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을 연결하여 그 흐름들의 얽힘과 내부작용을 가속한다. 이 새로운 어셈블리지는 인류세의 위기 속에서 “자식 대신 친척을 만들자!(Make Kin Not Babies!)”<sup>40)</sup>는 해러웨이 슬로진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애트우드도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위기에 처한 여성들, 비인간 생명체들을 친척으로 만들어 최선을 다해 직접 돌보라고 말한다. 이제 인간-비인간 대가족을 이룬 신의 정원사들은 별떼처럼 한 몸이 되어 사랑과 배려, 관심과 희생, 즉각적인 응답능력으로 서로를 돌본다. 신의 정원사들은 가능한 많은 물질적 흐름들을 구부러 빨아들이고, 흐름들의 얽힘과 내부 작용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는 조작역량을 강화하면서, 바깥지옥세계의 “이윤율에 위협적인 존재”, “더 이상 능력 없는 별난 사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327)” 강고한 어셈블리지가 된다.

신의 정원사들은 인간과 동물만이 아니라 쓰레기와 유해물질들도 끌어와 조작하여 단절된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바깥지옥세계에서 버린 비누 쪼가리를 모아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술집 등에서 남은 와인을 모아 식초를 만든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는 멸종된 영장류들을 위한 기념물을

40)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op. cit., p. 102.

만든다. 이들에게 “쓰레기, 잡동사니, 오물 같은 건 없다. 단지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한 물질만이 있을 뿐이다(83).” “유해한 물질이라도 선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61).” 재생 비누와 식초는 세균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정원사들이 씻고 청소하는 데 사용된 후 나머지는 바깥지옥세계로 팔린다. 소비자들은 다른 유기농 제품들은 믿을 수 없지만 정원사들의 제품은 진품 냄새가 나며, 정원사들이 광신적이고 우스울 정도로 괴상해 보이지만 적어도 윤리적이라고 선호한다(170). 이처럼 신의 정원사들에게 포획된 바깥지옥세계의 쓰레기와 유해물질들은, 물질적-기호적-정동적 내부작용을 거쳐 새로운 에너지 흐름과 순환을 만든다. 렌틴(Timothy Lenton)과 라투르는 물질적으로 거의 닫혀 있는 가이아 체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성공적인 순환 경계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새로운 생산물로 만드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sup>41)</sup>

신의 정원사들이 동물 친척을 먹지 말라고 설교하고, 시크릿버거와 행복한컵 매장 앞에서 생태계 파괴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조롱할 뿐이지만, 쓰레기와 유해물질로 바깥지옥세계에서는 희귀한 안전하고 윤리적인 물건을 생산하여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행위능력(조작역량)을 보여줄 때,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보다 더 설득적이다. 정원사들은 자신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말하지만, 렌은 그보다는 정원사들의 유행에 뒤쳐진 볼품없는 옷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렌의 시각은 어린아이의 유치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세계가 작동하는 물질적인 방식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작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깥지옥세계의 조롱은 초라한 옷, 기름기 없는 맛없는 음식, 무소유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두려움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바깥지옥세계의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지 말고, 지구를 살리자는 정원사들의 믿음과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동물을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가족을 배

41) Timothy M. Lenton and Bruno Latour, op. cit., p. 1067.

신하고, 살인하고, 성을 팔지 않고서는, 저렴한 시크릿버거를 먹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생존과 현재 활동을 존속할 물질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비윤리적인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감내하는 이유는, 그 이데올로기나 조건을 세상의 자연적 질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한 일들(구직, 부채상환, 질병관리, 자녀교육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바깥지옥세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브6로서 철저히 채식하던 토비가 팬데믹 이후 육식하는 이유는, 토비의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남의 몸을 먹고, 내 살을 내주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물질의 순환은 “생명의 순환(71)”이다. 그래서 정원사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퇴비(compost)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71)”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독수리의 일부가 되도록 내주는 것은 고대할만한 멋진 미래(71)”라고 여긴다. 필라는 죽은 후 퇴비가 되어 에너지 순환에 동참하길 소망한다. 그래서 죽은 후 자신 위에 딱총나무(Elderberry)를 심어 정원사들이 열매를 채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러웨이는 SF인 「카밀 이야기 (“The Camille Stories”）」에서 신의 정원사들과 매우 유사한 “퇴비 공동체 (The Communities of Compost)”<sup>42)</sup>를 상상한다. 퇴비 공동체는 신의 정원사들과 마찬가지로 황폐한 땅에 기꺼이 들어가 생명을 되살리는 퇴비가 되고자 한다. 애트우드와 해러웨이가 찬양하는 ‘퇴비’가 의미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필멸의 인간이 꼭 썩어서 물질의 순환에 동참해야 인류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애트우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려는 트랜스휴먼들의 욕망을 새론당신스파(AnooYooSpa)에 빚대어 질타하면서 썩는 것의 미학, 에너지 순환의 미학에 대해 매우 설득적이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개체(물질)는 엔트로피 법칙(열역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는다.<sup>43)</sup>

42) Ibid., p. 145.

43)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물질,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깥지옥세계 또한 자체의 “은밀한 음모와 기계적 간계, 작은 반역 행위, 엉큼한 불복종 행위”<sup>44)</sup>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이 엔트로피는 두 가지 개입, 즉 간접적으로는 사람들이 신의 정원사들의 재활용 제품을 소비하면서 물질적-기호적-정동적인 마주침을 통해 자신들의 삶형태가 가짜이고 비윤리적임을 새삼 깨닫거나, 혹은 신의 정원사들이 바깥지옥세계 내부의 에너지의 흐름을 보다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증가한다. 자체의 은밀한 불복종 행위들은 자신의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에 균열을 내어 엔트로피를 높이면서 매끈하고 강고한 어셈블리지를 파탄낼 준비를 한다. “건강현인 조합(the HelthWyzer Compound, 79)”의 간부였던 글렌(Glenn)의 아빠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필라에게 조합의 사악한 의료 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었고, 글렌 또한 조합 자료를 해킹해서 정원사들에게 보내주었다. 필라는 조합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모두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며 의료 윤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합을 탈주하여 신의 정원사에 합류했다면서, “궁극적으로 물이 새지 않는 배는 지금까지 한 척도 만들어진 적이 없다(126)”고 말한다. 이 말은 정원사들이 세계가 작동하는 엔트로피 법칙을 통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의 정원사들에 합류한 의사들은 조합에서 제조한 항생제나 약 대신 다양한 비인간을 치료에 이용한다. 이들은 칼로 베인 쟈(Zeb)의 상처를 식초로 닦고 꿀을 문질러 발라 지혈한 후 옷나무 즙을 마시게 한다. 또한 구더기를 이용하여 괴사되는 환부를 치료한다. 음식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했던 식초나 꿀은 정원사들과 접촉하여 소독제와 지혈제로 작동하고, 징그럽고 해로운 벌레였던 구더기와 거머리는 정원사들과 연결되어 보다 효율적인 치료 역능을 발휘한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굶주리던 토비는, 죽은 돼지를 둘러싼 독수리, 까마귀, 구더기 등의 먹이 연쇄와 에너지 흐름들을 파악하여 흐름들 중의 하나인 구더기를 음식으로 섭취하여 자신

---

변한다.

44) Levi R. Bryant, op. cit., p. 81.



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토비의 생존 및 활력의 증가는, 렌을 치유하고 돌보는 행위로 이어지고, 렌과 토비는 정원 파괴자를 대표하는 “고통공죄수들(Painballers, 118)”을 제압하고 아만다를 구출한다. 애트우드르는 인간-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sup>45)</sup>의 물질들의 얽힘과 내부작용과 순환을 간파하고 그것에 개입함으로써 생명을 회복하는 열역학 정치·경제·윤리·미학을 잘 보여준다.

#### IV.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라

드디어 신의 정원사들이 그토록 자주 경고했던 팬데믹이 지구를 휩쓴다. 바깥지옥세계의 인간들이 만든 “초강력세균(superbug, 337)”이 삽입된 “슈퍼섹스 알약(supersex pill, 474)” 때문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키면서 급속하게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죽어나가고 폭동, 약탈, 살육이 자행된다(337). 이 전염병은 인류 외 다른 생물종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509). 신의 정원사들은 장갑과 원뿔형 여과기를 코에 착용하고 레퓨지아에 피신 후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여일하게 체득한 “깊이 몸에 밴 습관들(ingrained habits, 18)”에 따라 행동한다. 이 습관의 핵심은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그들은 버려진 건물에 살았고 생활용품들은 모두 밖에서 주워왔다. 안전한 식재료 마련을 위해 정원의 흙을 고되게 일구었으며, 냄새나는 생태변기를 감내했고, 빗물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매일 샤워하지 않는 규칙을 지켰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재활용하면서 탄소배출 제로의 고행의 길을 걸어왔고, 이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 되어 문명이 붕괴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한다.

45) Mike Michael, *Actor Network Theory: Trials, Trails and Translations*, Los Angeles: SAGE, 2017, p. 28.

팬데믹 속에서 비인간들의 행위능력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토비는 비 밀리에 아라랏 창고를 만들어 든 건물에 남아 문을 걸어 잠갔고, 양식이 점점 줄어들자 정원사 시절의 습관과 학습에 따라 건물에 딸린 텃밭을 일구어 먹을 것을 조달했다. 렌 또한 유연히 격리구역에 남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 격리구역에는 “태양광발전기(the solar)”가 다행히 계속 작동하여 물이 나오고, 음식이 든 미니 냉장고와 냉동고, 공기정화기가 작동했다(338). 겨우 작동하는 핸드폰을 통해 아만다에게 구조도 요청했다. 이 개체들(태양광발전기, 유전자조작 식품들, 물, 냉장고, 냉동고, 공기정화기, 핸드폰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렌은 생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특정한 인간-비인간 어셈블리지에서 비인간 개체들은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토비와 렌은 이제 레퓨지아의 식량이 바닥났을 뿐만 아니라, 인질로 잡힌 아만다를 구하기 위해 문명이 파괴된 야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토비는 남은 식량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기는데, 정원사 시절 배운 대로 “음식으로 나올 수 있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킬만한 짐은 가져가지 않는다(435).” 토비가 챙긴 식량과 도구들(설탕, 소금, 꿀, 총, 탄약 등)인 인간을 넘어서는 비인간들은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상황, 즉 인질범들을 물리쳐 아만다를 구하고, 야생의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토비와 렌의 에너지 흐름을 유지시킬 필수적인 소중한 행위자들이다. 그래서 애트우드느 이 비인간 사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나열한다. 이 여성들이 극악무도한 인질범들과 맞닥뜨려 이겨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 사물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는 생존이 가능하다. 이 비인간들은 반생명적인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아만다를 구출하기 위해 즉각적인 응답능력을 발휘하는 열역학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팬데믹이 지구 정원을 파괴한 인간들을 휩쓸자, 새소리를 삼키던 자동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3). 이제 작은 새들의 목소리가 날카롭

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온갖 동물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며, 칙들이 폐허가 된 문명의 잔해들 위로 기어오른다(462). 인간이 만든 오염이 치워지니 공기도 아주 맑다. 살아남은 정원사들은 세상이 새롭게 정비되는 “재생(rebirth)”의 첫 순간을 목격한다(443). 재생의 첫 순간은 이제 SF만의 한 장면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인들이 반 강제적으로 격리되자 자동차, 항공기, 배, 공장이 멈추고, 인간이 사라진 땅과 바다와 하늘에 야생동물들이 대거 출현하는 진풍경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이아의 일부일 뿐인 인류가 다른 구성원들의 자리를 빼앗아 독점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여 다른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몇몇 살아남은 정원사들은 잔해 속의 부품들을 이용해 통신시설과 태양광발전기를 복구하고, 음식을 조달할 채소밭과 정원을 만들고, 생존가능한 정원사들을 찾고, 사나운 유전자조작 동물들을 견제하고, 아직 살아남은 악랄한 생명 파괴자들과 싸우면서 “인류를 재건하기(468)” 위해 노력한다. 통신시설, 태양광발전기, 채소밭 등 비인간들의 물질적 도움 없이는 이들의 생존과 재건은 불가능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인류를 대신할 “또 하나의, 더 자비심 많은 인종(another, more compassionate race, 509)”인 크레이커들(Crakers)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 V.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인류세의 팬데믹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의 정원사들의 열역학 정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원사들은 반생명적인 네트워크의 문제적인 물질적-기호적-정동적 흐름들을 절단하고 재생산을 차단하여 균열을 만든다. 그리고 이 흐름들을 포획·변형하여 자신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 이들은 동식물들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시키고, 멸종된 생

명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생태-환경론자들을 성인으로 기리고,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와 치료제를 생산하고, 고통 받는 인간과 동물들을 구출하여 돌보고, 에너지를 비축한 레퓨지아를 곳곳에 구축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재활용하면서, 탄소배출 제로의 삶형태를 만든다. 평생을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인들처럼, 정원사들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될 가이아적인 삶을 살고자 애쓴다.

라투르는 미셸 세르(Michel Serres)에 기대어, “종교는 한 사람이 꼭 붙잡고 있고,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엇을 지명한다”고 본다.<sup>46)</sup> 종교 집단인 신의 정원사들이 신도들에게 지명한 것은 지구 가이아이며, 인류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것도 가이아다. 그러므로 인간과 비인간 모두가 묶여있는 가이아를 조심스럽게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돌보지 않는 것은 신의 정원사들에게든 인간에게든 ‘태만(negligence)’이라는 큰 죄에 해당한다. 태만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심각하게 가이아를 훼손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지금 가이아가 멸종이라는 궁극적 처벌을 하겠다며 인간을 위협하고 있어서”, “현재 바글대는 수십억명 중 극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다”<sup>47)</sup>라고 예측한다. 이 소설은 마치 러브록의 예측에 영감을 받은 듯 가이아의 복수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그리는데, 전반적인 경향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놀랄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닮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백사십만 명이상이 사망했고, 겨울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다. 인류세에 ‘깨어난 거인’ 앞에 움츠러든 인간의 삶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가이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소설 속의 신의 정

46)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p. 152.

47) James Lovelock, *The Revenge of Gaia: Why the Earth is Fighting Back-and How We Can Still Save Humanity*. London: Penguin UK, 2007, p. 189.

원사들은 광적인 생태론자라고 박해받았지만, 결국 팬데믹에서 살아남았다.

“가이아의 침입(intrusion)”<sup>48)</sup>, “사물들(things)의 반격”<sup>49)</sup>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데믹을 벗어나 적절한 삶이 다시 가능하게 하려면, 가이아를 파괴하는 억압적인 네트워크들이나 가이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특정 네트워크들의 에너지원과 작업역량에 개입하여 그 흐름들을 절단·포획·변형·감속·가속시켜야 한다. 신의 정원사들처럼 의식(ceremony)과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명확한 경제·윤리·미학·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제 열역학 정치는 제 분야를 아우르는 열역학 “가이아 정치(Gaia-politics)”<sup>50)</sup>로 확장된다. ‘열역학 가이아 정치’를 위한 다양한 일들이 상상되고 발명되어야 하며, 정원사들이 보여주는 혁신적인 삶형태는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작품은 팬데믹을 초래한 가이아의 물질적 세계에 주목하고,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탈주 속도에 도달하기 위한 ‘열역학 가이아 정치’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발명하므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략을 발명하는 데 있어 현실 적합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높여준다.

48) Isabelle Stengers, “Autonomy and the Intrusion of Gaia”, *South Atlantic Quarterly*, 116.2, 2017, p. 386.

49) Bruno Latour, “When Things Strike Back: A Possible Contribution of ‘Science Studies’ to the Social Scien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2000, p. 107.

50)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p. 232.

## • 참고문헌

### <자료>

마거릿 애트우드 저, 이소영 역, 『홍수』, 민음사, 2012.

Atwood, Margaret, *The Year of the Flood*, London: Virago Press, 2013.

### <연구논저>

#### 1. 국문문헌

김환석,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2018, 1~10쪽.

후쿠오카 신이치 저, 김소연 역, 『동적평형』, 은행나무, 2010, 192~193쪽.

#### 2. 서양서

Alaimo, Stacy,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Bloomington: Indiana UP, 2010.

Bahrawi, Nazry, “Hope of a Hopeless World: Eco-Teleology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Green Letters*, 17.3, 2013, pp. 251~263.

Barad, Karen,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P, 2007.

Bergthaller, Hannes, “Housebreaking the Human Animal: Humanism and the Problem of Sustainability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English Studies*, 91.7, 2010, pp. 728~743.

- Bouson, J. B., ““We’re Using Up the Earth. It’s Almost Gone”: A Return to the Post-Apocalyptic Future in Margaret Atwood’s *The Year of the Flood*”, *The Journal of Commonwealth Literature*, 46.1, 2011, pp. 9~26.
- Bryant, Levi R., *Onto-Cartography: An Ontology of Machines and Media*, Edinburgh: Edinburgh UP, 2014.
- Canavan, Gerry, “Hope, But Not for Us: Ecological Science Fiction and the End of the World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Lit: Literature Interpretation Theory*, 23.2, 2012, pp. 138~159.
- Ciobanu, Calina, “Rewriting the Human at the End of the Anthropocen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The Minnesota Review*, 83, 2014, pp. 153~162.
- Colebrook, Claire, “9/11 as Event and *The Year of the Flood*”, *Women’s Fiction and Post-9/11 Contexts*, 2014, pp. 1~16.
- De Marques, Eduardo Marks, “Children of *Oryx*, Children of *Crake*, Children of Men: Redefining the Post/Transhuman in Margaret Atwood’s “ustopian” *MaddAddam* Trilogy”, *Aletria: Revista de Estudos de Literatura*, 25.3, 2015, pp. 133~146.
- Del Villano, Bianca, “An Ecocritical Retelling of the Bible: Genesis and Apocalypse in Margaret Atwood’s *The Year of the Flood*”, *Textus*, 27.3, 2014, pp. 151~170.
- DeLanda, Manuel,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3.
- Deleuze, Gilles, *Pure Immanence: Essays on a Life*, New York, NY: Zone Books, 2001.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DiMarco, Danette,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Homo Faber and the Makings of a New Beginning in *Oryx and Crake*”,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41.2, 2005, pp. 170~195.
- Haraway, Donna, “Anthropocene, Cpaitalocene, Plantationocene, Chthulucene: Making Kin”, *Environmental Humanities*, 6, 2015, pp. 159~165.
- \_\_\_\_\_, *Manifestly Haraway*, Minneapolis, MN: U of Minnesota P, 2016.
- \_\_\_\_\_,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P, 2016.
- Hoogheem, Andrew, “Secular Apocalypses: Darwinian Criticism and Atwoodian floods”,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45.2, 2012, pp. 55~71.
- Labudová, Katarina, “Power, Pain, and Manipulation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Brno Studies in English*, 36.1, 2010, pp. 134~146.
- Latour, Bruno, *We Have Never Been Modern*,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P, 1993.
- \_\_\_\_\_, “When Things Strike Back: A Possible Contribution of ‘Science Studies’ to the Social Scien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2000, pp. 107~123.
- \_\_\_\_\_,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30.2, 2004, pp. 225~248.
- \_\_\_\_\_,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 Catherine Porter,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7.
- Lenton, Timothy M., and Bruno Latour, “Gaia 2.0”, *Science*, 361.6407, 2018, pp. 1066~1068.
- Lovelock, James, *The Revenge of Gaia: Why the Earth is Fighting Back-and*



- How We Can Still Save Humanity*, London: Penguin UK, 2007.
- Marx, Karl, *Economic &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pdf/Economic-Philosophic-Manuscripts-1844.pdf>>
- Michael, Mike, *Actor Network Theory: Trials, Trails and Translations*, Los Angeles: SAGE, 2017.
- Mosca, Valeria, “Crossing Human Boundaries: Apocalypse and Posthumanism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The Year of the Flood*”, *Altre Modernità*, 9, 2013, pp. 38~52.
- Northover, Richard Alan, “Ecological Apocalyps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Studia Neophilologica*, 88, 2016, pp. 81~95.
- Simondon, Gilbert, *L’individuation à la lumière des notions de forme et d’information*, Grenoble: J. Millon, 2005.
- Stengers, Isabelle, “Autonomy and the Intrusion of Gaia”, *South Atlantic Quarterly*, 116.2, 2017, pp. 381~400.
- van der Tuin, Iris, and Rick Dolphijn, *New Materialism: Interviews & Cartographies*, Open Humanities Press, 2012.
- Wright, Laura, “Vegans, Zombies, and Eco-Apocalypse: McCarthy’s *The Road* and Atwood’s *Year of the Flood*”,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Isle)*, 22.3, 2015, pp. 507~524.
- Yong, Ed, *I Contain Multitudes: The Microbes within Us and a Grandder View of Life*, New York, NY: Ecco, an Imprint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6.

## Thermodynamic Politics for Surviving Pandemics

—Margaret Atwood’s *The Year of the Flood*—

Joo, Kee Wha\*

With regard to the struggle of the contemporary people to survive the COVID-19 pandemic,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stories of those who survived in anticipation of and in preparation for the pandemic in *The Year of the Flood* by Margaret Atwood. Previous studies on the novel have explored the ecological crisis of the Anthropocene mainly focusing on technological imperialism, feminism, human engineering, apocalypse, religion and theology, and posthumanism. However, this work specifically represents material entanglement, intra-action, circulation, and nonhuman agency in the world, 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it through the lens of new materialism in the material turn. This paper explores the reassembling the assemblages of the novel through the thermodynamic politics targeting material entanglement, intra-action, circulation, and nonhuman ag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God’s Gardeners in the novel slow down and cut off the problematic material-semiotic-affective flows of the anti-life network. And by capturing and transforming these flows, it stably reproduces the network that restores life. This work pays attention to Gaia’s material world that caused the pandemic, and specifically explores and invents the thermodynamic politics to come up with the speed of escape from the pandemic.

---

\* Institute of Body & Culture, Konkuk University

Key words: Margaret Atwood, *The Year of the Flood*,  
Anthropocene, Pandemic, New Materialism,  
Thermodynamic Politics, Thermodynamic Gaia-politics

필자 E-Mail: kflowerju@hanmail.net

투고일 2020년 10월 16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